

## 베스트셀러 아이템 1위에 등극한 '벨트백'

“손에 들고 다니기 귀찮아!”

손에 들고 다니는 백 대신 간편하게 허리에 차고 다닐 수 있도록 작으면서도 소지품을 충분히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벨트백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벨트백 유행의 원인을 실용성을 중시하는 생활태도와 더불어 벨트백을 차고 다니면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도난의 위험으로부터도 거의 자유로울 수 있는 때문으로 분석한다.

‘힙색’ ‘페니백’으로도 불리는 벨트백은 1980년대 스키 타는 사람들이 매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룩에도 잘 어울려 데일리 백으로도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손을 자유롭게 해 더욱 활동적인 하루를 만들어 준다. 벨트백을 매는 방법 또한 기존의 허리에 매는 방식에 크로스백처럼 대각선으로 매는 스타일링 방식이 더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행을 떠날 때 소매



치기를 예방하기 위해 허리에 댄 벨트백이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한 것이다.

벨트백은 캐주얼, 모던, 스트리트 등 어떤 룩에도 무심한 듯 특 허리에 걸쳐주기만 하면 된다. 특히 심플한 정장 재킷 위에 벨트백을 걸쳐주거나 허리가 드러나는 크롭탑 패션에 매주면 포인트 아이템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한층 더 경쾌하고 트렌디한 룩을 원한다면 어깨에 걸쳐주면 된다. 크로스로 벨트백을 연출하면 힙한 무드를 한층 더 돋보이게 스타일링 할 수 있다. 캐주얼한 룩에 어깨부터 크로스로 맨 벨트백이 더해지면 트렌드와 편리함 모두를 잡은 룩을 완성할 수 있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벨트백’이 미국 아웃도어 시장에서 52%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 아이템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기관 엔피디그룹(NPD Group)의 소매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아웃도어 시장에서 전년비 52%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 아이템 1위에 올랐다. 반면 백팩과 더플 백은 각각 4%와 6%만 증가했다.

엔피디 그룹의 스포츠 담당 부사장 겸 수석 산업 고문인 매튜 파월은 “페니백은 소비자들이 작고, 편리한 제품으로 인식되며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방수 천과 보안 기능을 통해 제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고객들이 위시 리스트 목록에 ‘힙백’을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JOY 핸디맨 & 플러밍

물새요:

연락주세요.

제이킴

24시간 714.249.5469

DDS SKIN & BODY HEALTHCARE

세계 최초 전기를 이용한 DDS 안마기기 효능!

탁월한 디톡스로 체질개선, 산성→알카리성

그랜드 오픈닝 스페셜

다이어트/피부개선/체질개선  
최초1회 \$100 70%off 1회 \$30

Open Hours Mon~Fri: 9:00am~7:00pm  
Sat: 9:30am~4:00pm

Tel: 714-713-5922  
5041 Ball Rd., Cypress, CA 90630

거문도 해풍속

거문도 해풍에서 자란 향이 짙은 냉동 썩 (한정 수량 판매)

거문도 해풍 개떡  
거문도 해풍 송편

여수 돌산 갓김치

농수산 마트 T.714-403-1230 1811 W Commonwealth Ave. #M Fullerton, CA 92833 (일요일 휴무)